

제25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3 인문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 [문제 1]

<제시문 가>~<제시문 바>는 인간 행동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700자 내외)

### 1. 출제의도

‘인간의 자아는 자유의지에 기초해 형성되는지, 아니면 조건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형성되는지’를 주제로 출제된 문항이다. 6개의 각기 다른 제시문들은 크게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결정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입장과 ‘비결정론’ 혹은 ‘자유지론’으로 설명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결정론은 인간을 유전자나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 행동이나 일탈행동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비결정론과 자유지론은 인간이 가진 지성과 의지는 환경의 영향을 극복하고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대립된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수험생들이 위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분류하고 요약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1번 문항의 목표이다. 나아가 같은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와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글에 드러내주어야 한다. 같은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 내에서도 보다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제시문이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작은 범위로 논의를 한정한 제시문들도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문 각각을 나열식으로 요약한 답안보다는, 제시문들 간의 복잡한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글을 보다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문들의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2. 문항해설

먼저 각 제시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인간은 유전자가 지닌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이 본능은 이기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곁으로 이타적으로 보일지라도 고도의 이기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

<제시문 나>: 인간의 행동은 훈련과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보상이 간헐적일 때 더욱 강박적으로 그 행동에 매달린다.

<제시문 다>: 로자 파크스가 촉발시킨 흑인민권운동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백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사회 규범에 저항을 했던 이유는 그녀가 자율적 신념과 양심에 기초하여 선택했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 사람들의 성공에 있어서 개인적 능력이나 의지가 미친 영향은 작고 그들의 부모나 자라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구조적 조건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제시문 마>: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 행하는 일의 의미와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까닭도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바>: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미리 규정된 본질이 없다. 인간은 자발적인 결단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이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정론 :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라>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외적 조건인 유전적, 학습적, 구조적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 비결정론 : <제시문 다>, <제시문 마>, <제시문 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신념이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자유지론’ 혹은 비결정론의 입장을 말한다. 즉,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과 신념을 가진 존재로서 순수한 내적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3. 채점기준

- A: 제시문들을 결정론(<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라>)과 비결정론 (<제시문 다>,<제시문 마>,<제시문 바>)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의 미세한 차이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요약한 경우
- B: 제시문들을 결정론(<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라>)과 비결정론 (<제시문 다>,<제시문 마>,<제시문 바>)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을 비교적 우수하게(통합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요약한 경우
- C: 제시문들을 결정론(<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라>)과 비결정론 (<제시문 다>,<제시문 마>,<제시문 바>)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였지만, 각 입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거나(즉, 각 제시문의 요약을 나열하였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제시문들을 결정론(<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라>)과 비결정론 (<제시문 다>,<제시문 마>,<제시문 바>)으로 분류하지 못했지만, 각 입장을 통합적으로 명확히 요약한 경우.
- D: 제시문들을 결정론(<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라>)과 비결정론 (<제시문 다>,<제시문 마>,<제시문 바>)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지도 못하고, 각 입장을 정확히 요약하지도 못한 경우
- E: 제시문들을 결정론(<제시문 가>,<제시문 나>,<제시문 라>)과 비결정론 (<제시문 다>,<제시문 마>,<제시문 바>)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지 못하고, 각 입장의 내용과 무관하게 요약한 경우 등.

4. 예시답안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다. 제시문들은 인간 행동이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과, 순수한 내적 의지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라>는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 학습적, 구조적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을 지지한다. 이 입장은 인간이 유전자가 지닌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본능은 이기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겉으로 이타적으로 보일지라도 고도의 이기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은 훈련과 학습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보상이 간헐적일 때 더욱 강박적으로 그 행동에 매달린다. 또한 이 견해는 사람들의 성공에도 개인적 능력이나 의지가 미친 영향은 작고 그들의 부모나 자라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구조적 조건들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본다.

반면 <제시문 다, 마, 바>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신념이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자유지론’ 혹은 ‘비결정론’의 입장을 말한다.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미리 규정된 본질이 없다. 인간은 자발적인 결단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인식능력에 기반한다. 즉, 사람은 스스로 행하는 일의 의미와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까닭도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자 파크스가 촉발시킨 흑인민권운동은 이런 자유지론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백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사회 규범에 저항을 했던 이유는 그녀가 자율적 신념과 양심에 기초하여 선택했기 때문이다.

## [문제 2]

아래의 <표>는 청소년의 가출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하여 이 자료를 해석하시오. (30점, 600자 내외)

###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해석형 문항이다. [문제 1]의 주제인 인간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구체적 사례인 <표>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특별히 '청소년의 가출행동'이라는 주제로 영역을 좁혀 [문제 1]의 일반론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2. 문항 해설

<표>는 청소년의 가출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6개 정도의 가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선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가족적 요인 :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폭행, 부모와의 의견차이, 형제 간의 불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학교적 요인 : 성적이나 학업의 부담감, 학교폭력,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의 요인이 청소년 가출에 작용하는 학교적 요인들이다.
- 친구 요인 : 친구의 부추김이나 이성이나 동성 친구와 같이 살고 싶은 목적 등이 가출에 있어서의 친구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도전 : 학교나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자 살고 싶은 욕구 등도 가출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심리적 요인 : 기존의 생활이 주는 답답함이나 짜증, 불안감 등이 가출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이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비행 요인 :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항목들을 [문제 1]의 두 입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결정론 : <가족적 요인>, <학교적 요인>, <친구 요인>

가족, 학교, 친구 등의 요인은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인간 행동의 원인에 대한 결정론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 항목을 더했을 때 73.6%로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가출 등의 일탈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2. 비결정론 : <새로운 도전>, <심리적 요인>, <비행 요인>

새로운 도전, 심리적 요인, 비행 요인은 청소년의 행동을 이끄는 내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외적인 조건들과 상관없이 도전의식이나 심리적 불안감과 범죄욕구 등으로 가출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비중은 21.4%, 즉 20% 정도에 불과하여 환경적 요인에 비해 그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가출행동의 요인에 있어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난다. 남학생은 학교적 요인으로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11.9%이다. 그러나 여학생은 3.4%에 불과하여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학교생활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영향에 쉽게 영향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은 심리적 요인 부분에서 남학생에 비해 1.5배 높은 2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불안감, 답답함, 충동성 측면에서 여학생들이 조금 더 취약하고 심리적 변화를 크게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 ① <표>에 나타난 6가지 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② 6가지 항목을 [문제 1]의 두 입장과 정확히 연관시켰는가?
- ③ 청소년 가출행동의 원인을 두 가지 입장 모두로 설명하였는가?
- ④ 가출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찾아내어 언급했는가?

- 채점 등급

- A: 위의 ①, ②, ③, ④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답안
- B: 위의 ①, ②, ③, ④를 파악하였으나, 설명이나 논리가 다소 부족한 답안
- C: 위의 ①, ②, ③, ④ 중 세 가지만 파악한 답안
- D: 위의 ①, ②, ③, ④ 중 두 가지만 파악한 답안
- E: 위의 ①, ②, ③, ④ 중 한 가지만 파악하거나, 아예 논의의 초점이 빗나간 답안

### 4. 예시답안

<표>는 청소년 가출행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보여준다. 이 중에서 가족적, 학교적, 친구 요인은 외부적·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반면 새로운 도전이나 심리적 요인, 비행 요인은 가출 청소년 개인의 내면적 이유에 가깝다.

이렇게 원인을 두 종류로 분류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가출의 원인은 가족적 요인이 63% 정도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학교·친구 요인이 약 73%에 이를 정도로 외적 요인은 청소년의 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가족간의 불화나 경제적 열악함이 청소년을 가출로 내몰기도 하고, 학교생활의 문제나 친구관계에서 오는 영향들로 인해 가출을 결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인간의 행동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제시문 가, 나, 라>의 입장에 부합한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모와 학교의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청소년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 원인에 외부적 조건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환경의 영향과 관계없이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나 심리적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도 가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픈 호기심이라든지, 가출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일탈행위에 대한 욕구가 가출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 요인들의 합이 약 22%에 달한다는 점은 인간이 환경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제시문 다, 마, 바>의 입장을 확인시켜 준다.

<표>는 남녀 청소년들의 차이도 드러낸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심리적 요인이 3분의 2정도인 반면, 학교적 요인이 4배 가까이 크다는 점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21%라는 점은 적어도 가출이라는 행동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발적 자유의사가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 [문제 3]

다음 <자료>를 읽고 공범관계인 '김양'과 '박양'에 대한 형량이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김양'이 감형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을 선택하여 정당화하시오. (30 점, 600자 내외)

#### 1. 출제 의도

[문제 3]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필요적 감형' 관련 문제이다. 최근 1심 판결에서 주범인 김양이 공범인 박양보다 더 낮은 20년 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성년 범죄자의 행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문제 1]의 쟁점과 관련해 따져보고, 김양의 감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이다. 반드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며, 두 입장을 결합하거나 두 입장 모두를 비판하는 식의 중립적인 접근은 문제의 요구를 벗어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 문항 해설

일단, <자료>에 나타난 문제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양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초등생 살해행위를 직접 실행한 행위자이다. 박양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사후에는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하고 인멸한 상태이다. 초등학생을 살해했으므로 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김양은 소년법에 따라 감형받아 20년 형만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반면 박양은 법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 김양의 감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결정론)

제시문 <가, 나, 라>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김양이 20년 형으로 감형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생물학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김양의 조건은 김양이 살인이라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청소년은 성년에 비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와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이다. 김양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책임의 일정 부분은 김양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김양은 아직 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가정과 사회는 김양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를 진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를 오롯이 김양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③ 만 18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 범죄자들에게는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후 수형과정에서 교화를 거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이루어진 미성년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차단하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김양의 감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결정론)

제시문 <다, 마, 바>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김양을 성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

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외적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김양은 미리 살인 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상당한 치밀함을 보였고, 살해 후에도 발각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등 미성년자로서의 미성숙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 ②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조건들이 성인의 수준과 점점 유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라는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범죄자의 형벌을 감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 ③ 소년범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의 수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죄를 지어도 높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④ 공범인 박양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고 주도한 정범 김양에 대해 더 낮은 20년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 ⑤ 김양을 감형했을 때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절망감 등 2차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 3.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 ① <자료>에 나타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②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선택하고 이것을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 ③ 김양의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 1]의 결정론과, 감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비결정론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 ④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하고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채점 등급

- A: 위의 ①, ②, ③, ④를 잘 드러낸 답안 : 견해를 분명히 선택하고 이를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연결한 후, 다양하고 타당한 논거를 3개 정도 제시한 답안
- B: 위의 ①, ②, ③, ④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다소 부족한 답안 : 견해를 분명히 선택하고 이를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연결했으나, 논거의 다양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 C: 위의 ①, ②, ③, ④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많이 부족한 답안 : 견해를 분명히 선택하고 이를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연결했으나, 논거가 아예 없거나 [문제 1]의 일반적 내용 반복에 불과한 답안
- D: 위의 ①, ②, ③, ④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현저히 떨어지는 답안 : 견해를 분명히 선택하지 못하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두 입장 모두 비판한 경우 또는 견해를 선택했으나 [문제1]과 연결하지 못한 답안
- E: 위의 ①, ②, ③, ④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예 논의의 초점이 빗나간 답안

#### 4. 예시 답안

##### <김양의 감형은 부당하다는 입장>

김양은 공범관계인 박양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 것이 합당하다. <제시문 다, 마, 바>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조건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벗어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감형하도록 한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김양은 미리 살인 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상당한 치밀함을 보였고, 살해 후에도 발각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등 미성년자로서의 미성숙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양심의 가책’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조건들이 성인의 수준과 점점 유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라는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범죄자의 형벌을 감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즉, 행위자가 ‘실제로 책임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인 박양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고 주도한 정범 김양에 대해 더 낮은 20년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소년범에게는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법의 또 다른 취지이나, 이것을 악용하는 청소년의 수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최고수위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청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높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양에 대해서는 그가 가진 자유의지에 기초해 범죄 책임을 평가해야 하며, 박양과 같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양의 감형은 정당하다는 입장>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감형받는 것이 합당하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생물학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점은 특히 <제시문 가>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김양의 조건은 김양이 살인이라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청소년은 성년에 비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와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김양이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도 이러한 생물학적 조건의 영향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 나, 라>는 인간을 둘러싼 총체적인 환경과 조건이 매우 강한 영향을 가짐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김양에게도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책임의 일정 부분은 그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시스템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양은 아직 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가정과 사회는 김양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를 진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를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돌리는 것은 비합리적인 책임 전가일 뿐이다. 부모의 방치와 학교교육의 포기, 사회의 무관심이 총체적으로 작동한 결과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만 18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 범죄자들에게는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수형과정에서 교화를 거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후회와 반성이 이루어진 미성년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차단하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